



고등교육 정/책/소/식

세계 인재들 모아 경쟁력 높인다

◎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국제학술연구단지가 조성된다. 국내외 유명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체와 함께 '산·학·연(産·學·研)' 공조 체계를 갖춰 각국의 인재와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2020년까지 1376만㎡ 규모의 터에 조성할 방침이다. 분교를 포함한 국내외의 대학 58개와 연구소 450여 개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목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이미 암·발병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미국 국립보건원 종신연구원 출신의 김성진 박사가 소장을 맡은 가천의과대의 암·당뇨 연구소가 동지를 틀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極地)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천의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포진해 있다.

홈피까지 만들어 놓고 가짜 학위장사

◎ 가짜 학위를 남발하는 미국 유명대학들의 실태가 밝혀졌다. 특히 미 연방수사국(FBI)이 학위 위조 일당 8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 테러리스트들에게도 가짜 학위증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져 미 보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실제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시리아 정보기관원은 이들에게 1277달러를 주고 가짜 화공학 및 환경공학 학위증을 샀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미국은 공학 관련 학위 소지자에게 입학 비자를 쉽게 발급해 준다. 이로 인해 FBI에서는 중동계 위험 인물들이 가짜 학위증으로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잠입한 사례가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BA 입학정원, 대학 자율에 맡긴다

◎ 정부가 대학 자율화의 실험대로 MBA스쿨(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정원 자율화를 추진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1일(화) 교과부는 지난 4월 MBA스쿨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표적 제재로 꼽힌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의 주·야간 입학정원 비율의 경우 '주간 입학정원 최소 25% 이상'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대학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MBA스쿨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인터넷 원격교육 1534억 지원

◎ 정부가 올해 인터넷 원격교육(e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모두 153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열린 민관(民官) 합동의 'e러닝산업 발전 실무위원회'에서 e러닝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7월 1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 6개 부처는 표준화와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3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우수 e러닝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e러닝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고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중국 등 주요 대상 국가에 현지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교과부, 기업의 대학평가 방식 확정

◎ 대학 교육과 기업체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 도입하기로 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방식이 확정됐다.

당초 기업이 대학 학과별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던 방식 대신 소수 정예 대학만을 선정, 이들 대학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을 컨설팅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점수 위주의 평가보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컨설팅해 주는 방식이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대학교협 등이 함께 추진 중인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7월 6일(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동차, 조선, 금융, 건설 등 산업 분야별로 10여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을 분석, 조언해 주는 '컨설팅 평가'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 분야 : 금융 건설 자동차 조선(2008년 기준)

■ 평가방식

평가 부문	평가항목 (예시)	평가지표 (예시)
인재 배출	취업 성과에 근거한 교육의 질	• 전공분야 관련 산업 별인재배출성과 • 해당 산업의 직무군별 인재배출 성과
전문 직무 역량	산업계 요구 지식·기술과 대학교육 성과 일치도	• 대졸 신입사원의 직무수행과 전공교육 일치도 • 현장실습 교육활동 • 졸업생/고용주의 직무수행만족도
일반 직무 역량	외국어 및 PC활용 능력 일반직무 역량과 대학교육 성과	• 영어시험 점수, 정보화 자격증 등 •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한나라당,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추진

◎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대학에 낸 기부금도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7월 1일(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공계 학부생에게도 정부 연구과제 지원

◎ 교과부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한다고 7월 2일(수)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이공계 학생이 학부 시절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수와 조교 등 선배 연구자들과 멘토십을 조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15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urp.igs.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美, 유학하며 인턴 취업한다

◎ 올 2학기부터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들이 미국에서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발행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학생들이 최대 12개월까지 미국 교육기관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인턴(Student Interns)' 부문을 문화교류비자(J1)에 도입한 것으로 7월 3일(목) 확인됐다.

로스쿨 8곳 등록금 인상, 성대 연 2천만 원

◎ 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성균관대로 연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연세대 등 8개 대학이 예비인가 때보다 등록금을 올렸다.

교과부는 7월 4일(금)까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월) 발표했다.

서울 11개 고교서 대입 논술 배워요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수시모집 논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논술 거점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운영하기로 했다고 7월 7일(월)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11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를 한 곳씩 선정해 7월 21일(월)부터 5일 동안 거점학교를 열고 기출 문제 및 모의논술 문제 풀이·분석, 첨삭지도 등으로 수업을 꾸려갈 계획이다.

현재 거점학교 운영 신청을 받고 있고 다음 주에 최종 11곳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각 거점학교는 논술 유형에 따라 문과 4개 반, 이과 2개 반을 운영하며 교육청별로 100명씩 총 1100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수강료는 5만 원이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으로 교재비, 수업비를 지불할 수 있다.

내년 3월 대학 세 곳 개교

- 교과부는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한 3개 학교법인에 대학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은 중원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등 2개 대학과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1개 대학원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독일 노벨상 사관학교 막스플랑크 유치 추진

-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Max Planck Gesellschaft) 연구소의 한국 유치가 추진된다. 포스텍 백성기 총장은 7월 9일(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포항시와 함께 막스플랑크 재단의 신소재 분야 연구소를 포스텍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도 로스쿨로 모인다

- 내년부터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의사 출신 지원자가 몰리면서 의사들의 로스쿨 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7월 14일(월)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 전체 지원자 1만 960명 가운데 의사가 220명(2%)을 차지했다.

이는 약사 출신 지원자 120명(1.1%)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의사들의 로스쿨 행이 붐을 이룰 전망이다. 내년 로스쿨 입학 경쟁률은 5.48대 1에 그쳐 매년 200명을 웃도는 의사들이 변호사로 변신할 것이라던 때 이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 폭주

- 7월 17일(목) 연세대와 한양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이 수시1학기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09학년도 수시1학기에 신설된 입학사정관 전형 ‘연세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39.90대 1을 기록,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공단위별로 모집한 이번 전형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대 폐지로 신설돼 관심을 모은 자유전공학부에 31명이 지원, 52개 전공단위 중 6위를 기록했다.

건국대 KU입학사정관전형(자기추천)도 15명 모집에 1105명이 지원, 73.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인 KURI리더십전형도 32.49대 1을 기록했다. KU 예술영재전형은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7월 16일(수) 원서접수를 마감한 중앙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 (30명 모집)에 1085명이 몰려 3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문실적 부풀리기 적발 땀 연구비 환수

- 서울 A사립대 이모 교수는 지난해 외부 수탁 연구비 중 일부를 자신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학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무사’했다. 징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장 명의의 형식적인 경고 조치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7월 17일(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이 바뀐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대학, 입학문 넓어도 졸업문 좁다

- 일본 대학들도 점차 입학하기는 쉽지만 졸업하기는 어려운 추세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교 졸업생에 비해 대학 모집정원이 많은 이른바 ‘전원 입학시대’에서 대학생의 학력 향상은 대학들의 최대 목표이다.

7월 20일(일) 요미우리신문이 자체 조사한 지난해 1년간의 일본 대학의 평균 졸업률은 8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명이 입학했을 때 1.5명이 졸업하지 못하고 탈락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일

본 대학의 평균 졸업률은 91%로 30개국의 평균 70%보다 훨씬 높았다.

일본 대학의 졸업이 그만큼 힘들어져 국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4월부터 대학원 대학을 제외한 전국 725개 대학 가운데 499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 대학들은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다는 말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미국·유럽 등과 같이 대학들의 학사관리, 즉 '출구관리'가 엄격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타대학 출신 교원 쿼터제 없애달라

◎ 서울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이 타교 출신 교원을 3분의 1 이상 뽑도록 하는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7월 23일(수) 각 대학들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는 타교 출신 교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뽑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4조 3항(타교 출신 쿼터제)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안을 최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국내 대학 간 공동학위 받을 수 있다

◎ 국내 대학 간에도 공동학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국내 교수가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사운영과 인사 등 7개 분야에 걸쳐 45개 자율화 과제를 선정해 '2단계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7월 24일(목) 발표했다.

5년간 해외취업·인턴 등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해외취업 5만 명, 해외 인턴 3만 명, 해외 봉사활동 2만 명 등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을 육성하고 금융·문화콘텐츠·첨단의료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도 마련된다.

또 지하철·버스요금 등 지방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K21' 성과 부진 땀 지원 제외

◎ 내년부터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참여기관 중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사업 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교과부는 7월 28일(월) 이런 내용의 '2단계 BK21사업 성과 관리체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총 73개 대학에서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는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에만 2,721억 원이 지원된다.

골자는 평가방식의 변경과 성과 부진 사업단의 탈락이다.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져 있던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서울 2010년 고교 선택제 기정사실로

◎ 서울 시내 고교들이 2010학년도부터 '선(先) 지원 후(後) 추첨제'로 실시되는 고교 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특히 7월 30일(수) 시민 직선으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비선호 학교에 대해 지원을 늘리되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학급 감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학교 이전, 교육시설 개선, 학사 프로그램 개편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주 대학원, 내년 문 연다

◎ 우주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우주대학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대는 우주대학원 공동 설립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력협정을 8월 7일 대전 항우연에서 맺는다고 5일(화) 밝혔다.

로스쿨 평가 결과 첫 공개

◎ 7월 2일(수)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가 '로스쿨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가 934.5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의 대학별 로스쿨 평가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점수 산출방식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현석 흥익대 교수는 "교과부가 법원에 제출한 평가 위원별

로스쿨 평가 결과

순위	대학명	배정 인원	법교위 평가	법학교수회 분석
1	서울대	150	934.5	934.0
2	연세대	120	904.3	902.9
3	성균관대	120	896.5	893.7
4	고려대	120	892.5	893.5
5	이화여대	100	888.7	885.3
6	한양대	10	879.7	898.9
7	경희대	60	869.1	867.9
8	서울시립대	50	864.0	863.2
9	중앙대	50	863.1	861.4
10	한국외대	50	861.4	859.8
11	서강대	40	860.5	859.9
12	건국대	40	857.8	858.3
13	아주대	50	848.5	846.8
14	동국대	탈락	834.9	833.4
15	인하대	50	824.8	825.3
16	국민대	탈락	824.8	825.3
17	홍익대	탈락	820.3	819.6

서울권역 기준

채점표를 원자료로 대학들의 총점을 계산한 결과, 교과부의 발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점수가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교과부가 공고과정에서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산출방식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고유한 산출 방식이 있다"며 "법교위 권한"이라고 말했다.

위법한 직위해제 교수에 위자료 줘야

◎ 대학 측이 학교와 대립하는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배정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수)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윤모(49)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더 많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씨는 2001년 3월 이 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총학생회와 함께 '교수단입 규탄대회 및 학원민주화 투쟁결의' 집회에 참가하는 등 학교 법인과 대립했고 같은 해 5월 교수협 홈페이지에 '학교 측에서 영역 깰때까지 동원했다'는 내

용의 글을 올렸고, 업무차 해외로 출장을 간 부총장에 대해 '미국 도피 중'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학교는 같은 해 8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관에 따라 윤씨를 직위해제했다. 윤씨는 2003년 3월 학교에 복직했으나 학교 측은 윤씨의 전공과목을 비전공자에게 배정하고 윤씨에게는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배정해 정상적인 강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라며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시 2기 모집요강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8월 12일(화) 전국 190개 4년제 대학교의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요강 주요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일정

원서 접수 및 전형	2008. 9. 8(월)~12. 9(화)
합격자 발표	2008. 12. 14(일)까지
등록	2008. 12. 15(월)~16(화)

모집 대학 및 모집인원 : 190개 대학 206,223명 선발

<수시2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190개 대학에서 206,223명 (총 모집인원 378,625명의 54.5%)을 모집한다.

2009학년도 모집인원은 2008학년도에 비해서 16,923명이 증가하였는데, 고등학교정상화를 위하여 수시1학기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들이 이번 수시2학기부터 학생 선발을 하고, 대학의 설립취지, 교육목적 등을 반영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학 설립별 모집인원은 국·공립대학이 36개 대학 40,287명(19.5%)이며, 사립대학이 154개 대학 165,936명(80.5%)이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52개 대학 101,368명(49.2%), 특별전형이 185개 대학 104,855명(50.8%)이다.

특성화된 특별전형으로는 시험성적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탈피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학사정관 특별전형이 있으며, 12개 대학에서 336명을 선발한다. 수시2학기의 모집인원은 대학별 정원조정 또는 수시1학기 미충원인원 및 전학년도 미충원인원 이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univ.kcue.or.kr) 참조

대학자체평가 시범대학 선정결과 공고

◎ 대교협이 2009년 시행 예정인 대학정보공시제에 앞서 대학 자체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모한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0여개 대학이 신청해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등 국립 4개 대학과 동국대, 중앙대, 아주대, 한국외대 등 사립 4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연구비는 대학당 30,000천원이다.

대교협은 대학평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대학의 성과관리 실적 ▲자체평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대학의 역량 및 추진의지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세계 대학평가 1위 고수

◎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올해에도 상하이 교통대학의 전세계 500대 대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고명문의 자리를 지켰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상하이 교통대학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 대학 순위에서 미국의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UC 버클리가 각각 1~3위에 랭크됐다.

미국의 MIT(매사추세츠공대), 캘리포니아공대, 콜롬비아대, 프린스턴대, 시카고대는 각각 5~9위를 차지해 10대 대학 중 미국대학이 8개를 석권했다.

그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대가 4위, 옥스퍼드대가 10위를 차지해 영국대학이 미국대학 다음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영국의 런던대와 임페리얼 칼리지도 22위, 27위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프랑스 대학의 경우 100위권에 3개 대학이 들었으나 그 순위가 파리 6대학 42위, 파리 11대학 49위,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콜노르말쉬페리외르) 73위에 그쳐 미국과 영국대학에 비해 크게 뒤졌다.

프랑스 대학은 전년도에는 100위권에 든 대학이 4개였으나 올해에는 1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뮌헨대학 55위, 뮌헨공대 56위, 하이델베르크대학 67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도쿄대학이 19위, 교토대학이 23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울대는 152~200위권에 머물렀다.

대학 입학사정관 채용 붐물

◎ 특기와 잠재력을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 첫 도입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유망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2009학년도 입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려는 공고가 붐물을 이루고 있다.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은 잇따라 '입학사정관 모시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 사이에서 대학가 신종 직종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1명을 채용하는 이번 모집에서 40명이나 지원했다.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 지원 자격은 따로 없으나 교육학·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입시 관련 경험자를 우대한다.